



이번주 은혜의 말씀

우리의 먹고 마셔야 할

참 양식과 음료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양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 전체의 비극이 시작되었듯,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는 영적 생사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재창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진리를 먹는 문제로 표현하신 까닭은, 구원이 한낱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자라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상하거나 안심하라고 바른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넘여가기(유월) 위해 바른 것이었습니다. 정작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나 죄의식, 혹은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이미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인간의 가변적인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전히 만족하시는 절대적인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진리의 선언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백성이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세상의 임금인 바로(사탄)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혹은 “아이들이나 재산과 가족은 두고 가라”고 유혹하며 세상의 정과 물질에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영적 침체를 뿌리치고 애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은 오직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 양고기는 반드시 쓴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기 위해, 이 말씀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기 위해 읽는 겁니다.

”

- 본문 주일설교 (8/23) 중 -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소화되고 실제화될 때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속에서 쓴맛을 냅니다. 즉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하신 말씀대로 내 자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경건의 훈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죄의 열매만을 뉘우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주인 되었던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는 주인의 교체입니다.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한 성도가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과거 애굽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만남은 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지키기 힘든 율법적 의무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접하면 무거운 짐이 되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말씀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 먹는 달콤한 양식이 됩니다. 나아가 만남은 내일을 위해 쌓아두면 썩어버렸듯이, 한 번의 과거 구원 체험이나 이성적인 성경 교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거두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은 얻었을 지라도 현실의 육신에 잡혀 늘 패배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최종적인 완성은 터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듯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기서 터져 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밥에 해당하는 만나가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면, 생수인 성령은 그 생명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광야와 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속을 채우고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 10:10)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Nourished for the Journey: Lessons from Exodus 12

When God instructed the Israelites in Egypt to apply the blood of a lamb on their doorposts, that blood was never meant for the people inside the house to see. It faced outward, for God alone to see and pass over in judgment. The people inside may well have been full of their own faults and anxious feelings, but God, seeing the blood from outside, declared the whole household righteous and His own people. In the same way, the atoning blood of Christ's cross is the absolute basis of our forgiveness, fully settled in God's sight regardless of our shifting human feelings or emotions. So many believers still search within themselves for proof that they are truly saved, waiting for some feeling to confirm what God has already declared true.

Yet those redeemed by the blood could not stay in Egypt. They had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press on toward the place of true worship. Pharaoh offered compromises to keep them in place, tied down by worldly comfort and possessions; Satan does the same with us today. The strength to actually break free came only from eating the lamb's meat, together with bitter herbs and bread made without yeast. Similarly, receiving the gospel is sweet, but living it out is often bitter to our old self, because it requires our self-centered desires to die so Christ can take the throne we've been occupying. Leaven represents not just sinful behaviors but the deeper sin of wanting to be our own master. Unleavened bread pictures the alternative: an exchange of masters, handing over the old self and fully receiving Christ as our Lord, every day: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Once delivered out of Egypt and baptized through the Red Sea, believers inevitably walk through the wilderness, depending on God daily for everything. There, God fed Israel with manna that appeared fresh each morning; anyone who tried to save extra for the next day found it rotten.

Manna today means a life continually supplied with the life of Christ through God's Word daily. There is no stockpiling grace. What sustained us yesterday won't sustain us today. If we think of reading Scripture as a burdensome obligation or an object of academic study, it becomes a heavy weight that wears life down. But for a believer with His life in them, the Bible becomes sweet food that sustains them with life. His Word is meant to be eaten daily, the way the body needs food every day regardless of what it ate the day before. Just as manna rotted when hoarded, we must not be satisfied merely with a past experience of salvation or with doctrinal knowledge of Scripture.

We must cultivate the holy habit of gathering, each morning, through the Word and prayer, the fresh message of life that God gives that day. Without eating this spiritual food daily, one may still be saved yet remain weak and captive to the old self in daily reality, living a life of constant defeat and misery.

Many lifelong churchgoers only open their Bibles once a week. Yet none of us would call ourselves nourished from eating one meal a week, as we'd notice our bodies weakening immediately. We're slower to

notice the same happening to our spirit. When faith feels hard, it's worth asking honestly whether we've simply stopped feeding it.

God gave one more provision in the wilderness besides bread: water from the struck rock. As the apostle Paul testified, this rock is Christ,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and the water bursting forth from it symbolizes the Holy Spirit. Bread sustains, but water is essential, it's what no one can go without, even briefly. A person can survive a week without food, but not without water. If manna, corresponding to bread, sustains life and enables spiritual growth, then the living water of the Spirit allows that life to be richly enjoyed within our daily living and thoroughly satisfies the soul's deepest thirst.

None of this calls for reaching some elevated spiritual plateau. It's as ordinary and essential as a daily meal, waking each morning and choosing to gather what only God can provide that day. The question this week isn't whether we hold the correct beliefs about Jesus. It's whether we've actually eaten today, or whether we're living off some past encounter with Him. Gather His Word this morning. Surrender what still wants to rule your own life. Let the Spirit do what only He can do. When we are filled inwardly with the Word and the Spirit, and the Lord becomes the true master of our lives, we can overcome Satan's attacks and live a life of genuine peace and boldness, winning the victory day by day.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유년부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

